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고마움

어머니 생신을 맞아
아들이



엄마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둘 때 사진관에서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엄마의 생신을 앞두고 무슨 선물을 드릴까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사 드릴 수도 있고, 용돈을 드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을 하나씩 떠올려 보고, 그동안 말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 특별한 사건보다 사소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뜨개질하던 모습, 매일 아침 싸주시던 도시락, 직접 담그던 김치와 오래 끓이던 곰국....

그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보니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아팠겠구나.

엄마도 속상했겠구나.

그런데도 엄마는 묵묵히 우리를 키웠구나.

참 늦게 알았습니다.



이불 속 따뜻한 밥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중부시장에서 그릇 가게를 하셨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엄마가 있는 가게로 갔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해온 밥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이불 속에 묻어두셨습니다.

저는 별생각 없이 그 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때가 되었으니 밥을 먹었고, 엄마가 차려 주니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니 마음이 달라 집니다.

보온 밥솥이 흔치 않던 시절 이불 속에 묻어둔 따뜻한 밥.

아들이 올 시간을 생각하며 그 밥을 묻어 두었을 엄마.

제 기억 속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엄마가 떠주던 조끼

중부시장 그릇 가게의 엄마를 생각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뜨개질입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엄마는 가게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뜨개질을 하곤 하셨습니다.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해서 겨울이면 제가 입을 조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마는 참 손으로 무언가를 많이 만들며 살았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옷을 뜨고.

돈을 주고 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도 엄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것 역시 당연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엄마가 떠준 조끼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조끼 한 벌에는 털실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손님을 기다리던 시장의 수많은 시간과 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도 함께 엮여 있었다는 것을.



초등학교 졸업식



그때는 도시락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야간자율학습까지 해야 했으니 점심 도시락뿐만 아니라 저녁 도시락까지 하루에 두 개를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것도 저 하나만의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엄마가 준비해야 했던 도시락이 몇 개였을까요.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마다 나누어 담고...

그때는 그것이 대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방에 넣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아침 한 끼, 저녁 한 끼 챙기는 일도 때로는 힘들고 벅칩니다. 오늘은 뭘 먹일까 고민하고, 장을 보고,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또 다음 끼니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의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녔던 도시락 하나하나가 엄마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 늦게 알았습니다.

에필로그

엄마에게

엄마.

저는 여전히 무뚝뚝한 아들입니다.

다정하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생신을 맞아 이렇게 글로나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업고 가다 다친 손목을 아직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제가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얼마나 애쓰며 저를 키웠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이불 속에 묻어두었던 따뜻한 밥.

시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떠주던 조끼.

매일 아침 싸주었던 도시락.

그때는 모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아끼지도 말고,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절도 많이 다닙시다.

조용한 산사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합시다.



엄마와 손자가 함께한 시간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고마움북 1호 디자인 시제품 4차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을
한 권의 책으로 남깁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을 한 권의 책으로.